

해 외 어 선 정 보

편 집 실

이번호에는 스페인에서 건조한 어선 ALBATUN TRES호 및 MARLIONA호와 폴란드에서 건조한 KROSSFJORD호를 소개한다.

1. 선망어선 ALBATUN TRES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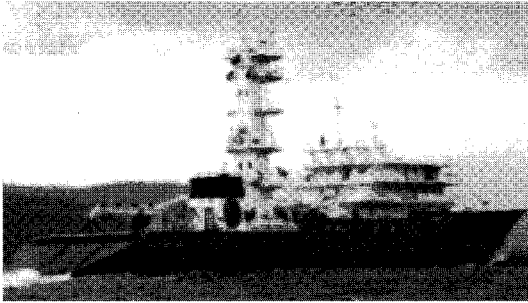
1. 선망검증층트롤어선 GARDAR호

설계	Vik · Sandvik
선주	AlbaCore(스페인)
조선소	Barreras(스페인)
선적	스페인
어업종류	미국식 가다랭이 마구로 선망
전장	115.93m
수선간강	100.6m
폭	16.6m
깊이	10.6m(상갑판)
깊이	7.4m(중갑판)
흘수	6.8m
총톤수	4,406톤(국제)
속력	18노트
주기관	바질라 MCR 5,850kW×1
프로펠라	CP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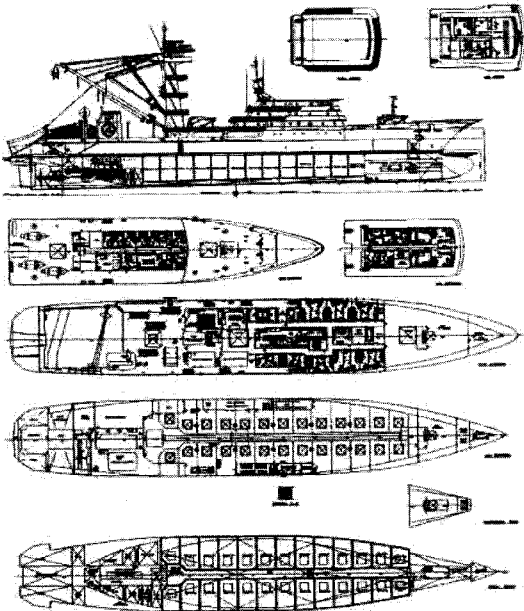
보기	4(발전기, 유압구동)
동결능력	140t/일(브라인)
어창	3,250m ³ (26구획)
연료탱크	775m ³
시미즈 탱크	75m ³
정원	31명
선급	BV

ALBATUN TRES호의 선주 ALBACORA사는 대서양, 인도양 및 태평양에 15척의 대형선망어선을 가지고 가다랭이 마구로고기잡이를 전개해 연간 10만톤이상을 양륙하고 있다. 선원실은 모두 욕실과 화장실이 딸린 개인실이고, 선장실과 기관장실은 데이 룸, 침실로 나누어져서 넓고 아늑하다. 식당은 직원용과 부원용으로 나누어 있다. EU에서는 이러한 대형선에는 상선의 SOLAS조약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구조정(해상에 빠진 사람의 구출과 구멍뚫목 예방용)이 필요하나 ALBATUN TRES호에서는 선미단의 스키프가

구조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림 1〉 ALBATUN TRES호 전경
(Fishing Boat World, March, 2005)



〈그림 2〉 ALBATUN TRES호 일반배치도
(Fishing Boat World, March,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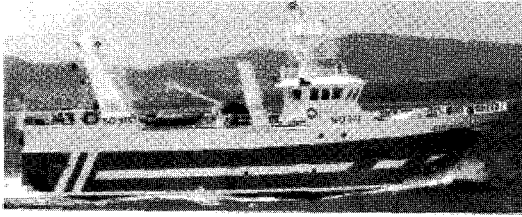
2. 롤러 MARLIONA호

조선소 Astilleros M.Cies(스페인)
선적 아일랜드
어업종류 투원리그 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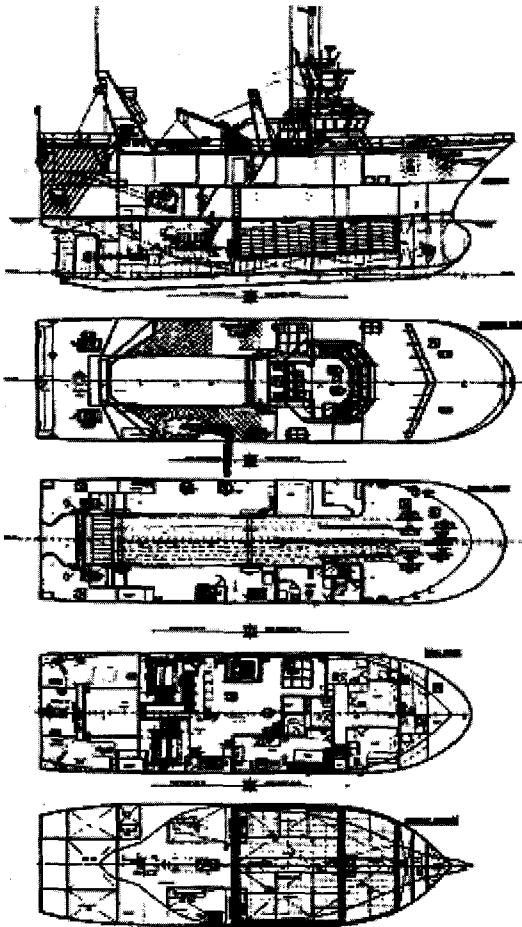
전장	32.50m
수선간장	약 26.0m
폭	8.50m
깊이(상갑판)	약 6.2m
깊이(제2갑판)	약 3.9m
흘수	약 3.7m
총톤수	35톤
주기관	안구로베루지안 DZC×1 MCR 1,815kW×1,000rpm
프로펠라	2.6mD CPP(콜트 노즐)
발전기	주기구동 350kVA×1 보기구동 350kVA×2
바우스라스트	1
제빙기	2.5t/日
동결기	0.5t/7h
와프윈치	155kW×2
수선윈치	80kW×3
기루손윈치	80kW×2
오토홀윈치	22kW×1
코트윈치	65kW×1
네트드럼	200kN 30m/min×2
어창	150m³
연료탱크	60m³
청수탱크	12m³
정원	10명

MARLIONA호는 아일랜드서방의 북대서양, 발트해, 북해에서 저층트롤 어업에 종사한다. 와프윈치는 폭로부에 배치하지 않고 중갑판의 폐위부에 수용하고, 와프는 갑판의 와프구멍을 통하여 갑판상에 유도된다. 닻은 선수에 없고 선미부의 앵카리세스에 수용하고, 묘쇄는 사용하지 않고 와프와이어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선수단에 수선원

치를 배치한 트롤에서는 체인로카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닻을 선미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MARLIONA호 전경호
(Fishing Boat World, Augus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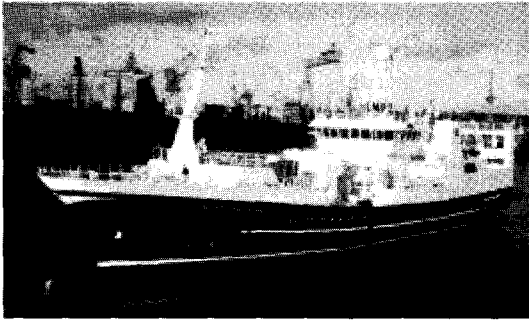
〈그림 4〉 MARLIONA호 일반배치도
(Fishing Boat World, August 2004)

3. PURSER · TRAWER- KROSSFJORD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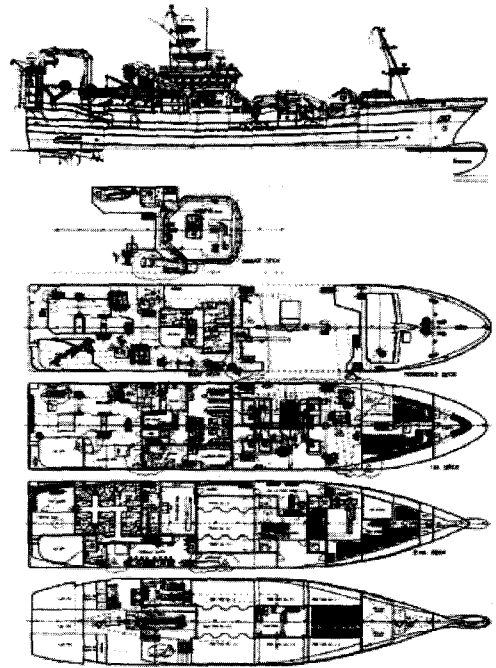
설계	Vik · Sandvik(노르웨이)
조선소	Gryfia(폴란드)
선적	노르웨이
어업종류	중층트롤겸 선망
전장	61.92m
수선간장	53.60m
폭	13.20m
심	8.00m(상갑판) 5.40m(제2갑판)
흘수	4.90m
속력	16노트
주기관	MAN B&W 3,300kW×1
어로기계	Triplex
네트윈치	185kN×1
네트크레인	40kN 9.8mR×1
중간로라	1
링구니도루	1
데크크레인	40kN×12mR×1
고기펌프크레인	20kN×10mR×1
어창(RSW)	1,000m ³ (8구획)
연료유탱크	400m ³
청수탱크	30m ³
정원	13명
선급	NV

폴란드의 Gryfia조선소는 제2차 대전 중 독일군이 사용하던 해군공창을 인수하여 1952년에 창립하여 주로 소련을 대상으로 건조했으나, 해방 후에는 설비를 근대화하여 서방의 상선을 건조하는 폴란드에서는 손꼽히는 조선소이다.

KROSSFJORD호의 건조는 노르웨이의 설계 컨설턴트 Vik · Sandvik사의 설계 패키지로 건조되었다. 지금까지의 폴란드 조선소의 어선건조는 노르웨이조선소의 선체하청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폴란드 자체건조이다. 그러므로 회항비를 생략할 수 있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림 5〉 KROSSFJORD호 전경
(Fishing Boat World, February, 2005)



〈그림 6〉 KROSSFJORD호 일반배치도
(Fishing Boat World, February, 2005)